



가축분뇨 불법배출 걸려도 처벌 '솜방망이'

도내 사업장 점검·관리 강화에도 불법처리 행위 여전 '관대한 처분' 원인... 사용중지 명령→과징금 대체도 제주시·서귀포시 "적발사업장 무관용 원칙 적용 처분"

제주도내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불법처리 위반행위가 줄지 않고 있어 행정처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불법처리 행정처분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제주시는 2017년 60건, 지난해 55건, 올해 4월말 기준 20건 등 3년간 총 135건의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이중 과발건수는 2017년 7건, 지난해 10건, 올해 9건 등 총 26건에 이르고 있다. 사용중지 명령 건수는 지난해 4건, 올해 2건 등 총 7건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2017년 15건,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4월말 기준 5건 등 3년간 30건이 적발돼 행정처분 됐다.

과발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3건, 올해 2건이며, 사용중지 명령 건수는 2017년 4건이다.

이처럼 가축분뇨 불법처리가 근절

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관대한 처분'으로 인한 능가 도덕적 해이 발생' 등이 꼽히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능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 처분 등을 호소할 경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제주시의 경우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으로 유출하거나 축사 내부를 청소하면서 가축분뇨를 인근 도로로 유출시키는 등의 사례가 지난해 4건, 올해 2건이 적발됐지만, 사용중지 명령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서귀포시도 지난해 사용중지 명령 처분 대상 4건 중 2건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처리했다.

이밖에도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

템을 활용해 110% 이상 과다 처리한 제주시 업체가 올해 4곳이 적발돼 고발 조치되는 등 부적절한 액비살포에 대한 감시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액비살포 기준은 살포지로 신고된 토지의 연간 살포량, 살포주기·횟수 등이 불명확하게 제시돼 재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계자는 "오염행위 적발사업장에 대한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강력 처분할 방침"이라며 "제주도 실정에 맞는 액비살포 기준에 대한 재설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환경자원총량제 등 과제 추진 미흡"

국제자유도시 수정계획 평가 양호 등급 65%·미흡 13% 등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사업 132개 중 20개(15%)가 추진되지 않거나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6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도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평가결과안 등을 심의했다. 분야별 평가대상은 프로젝트 19개, 관리사업 174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장기분류 과제 16개가 제외되고 유사프로젝트 45개가 통합·관리됨에 따라 실제 평가대상 사업은 총 132개로 축소됐다. 제주도는 목표달성도(50%)와 사업비 확보·집행률(50%) 등으로 점

수를 합산해 사업을 양호·보통·미흡 등 3등급으로 나눴다. 그 결과 양호 등급을 받은 사업은 85개(65%)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27개(20%), 미흡 17개(13%), 시기 미도래 3개(2%)로 조사됐다.

미흡과제를 보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자산신탁관리공사 ▷청년뱅크재단 설립 ▷제2점단과학교육단지 ▷스마트시티구축 ▷중산간 훼손지역 복원사업(송·배전로지중화사업)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이다. 이 중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정계획 이행(2017-2021)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12조4259억원이며, 투자실적(2017-2018)은 전체 계획 대비 42%, 투자계획 대비 88% 등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소진기자

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5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행정·재정·지방자치 분야, 보건·복지·문화·환경·도시분야, 농수축·경제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1~2명씩이다.

응모 자격은 대학 교양수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 연구·교육기관 실무경력 10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과 재정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이며 모집분야별로 응모할 수 있다. 고대로그자

도내 우수 관광사업체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우수 관광사업체를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경과한 제주도에 본점을 둔 사업체로, 관광지, 교통, 숙박업, 여행업, 음식점 등 5개 분야이다. 우수 관광사업체로 지정되면 홍보지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우수 관광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우수 관광사업체로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15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064-741-8744)로 신청하면 된다. 고대로그자



스승의 날 맞아 교사들과 소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38회 스승의 날'(15일)을 기념하는 '교사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석문 교육감은 초청된 도내 30개 고등학교 학생부장과 3학년 부장 교사들을 격려하고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현장학습 시 학생 옷·모자 통일해야"

교육청 조례안 개정 추진 참여학생 안전 도모 위해 같은 색상 옷 등 착용 권장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의복과 모자를 통일시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제주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제7조의 안전교육'에 항을 신설해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 참여 학생이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구별되도록 통일 색상의 의복이나 모자 등의 착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영식 의원은 오는 18일까지 관

련 기관과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양 의원은 "중전의 안전교육 등에서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과 쉽게 구별되는 의복이나 모자 착용을 권장할 수 있음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제주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표성준기자

"이마트 SSM 진출? 지역상권 초토화"

제주도의회 민생경제포럼 성명 내고 반대 입장 밝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경제모임인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은 14일 '대기업 기업형수퍼마켓(SSM) 개점 반대 성명서'를 내고 이마트 계열의 기업형수퍼마켓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제주시 아라동에 개점 예정인 이마트 계열의 '노브랜드'는 대기업의 가맹점 형태 편법 출점이지만 현행법상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역 내 상권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협

의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기업 기업형수퍼마켓의 가맹점 진출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빼앗고 영세상인들의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려는 의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포럼은 이어 ▷제주도는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풀뿌리 영세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며 ▷제주도는 유통업협회의회의를 즉각 개최해 대책을 마련하라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대기업 기업형수퍼마켓의 가맹점을 통한 편법 출점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표성준기자

군대 급식에 '제주 자숙 뿔소라' 나온다

내년 4월까지 145t 납품

'제주 자숙 뿔소라' 145t이 군부대 급식으로 제공된다. 가격 하락과 처리난을 겪던 제주 활소라 산업에 숨통이 트이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29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주 자숙 뿔소라가 군부대 급식제공 품목으로 최종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납품 시기와 규모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145t이다. 이는 제주 활소라 TAC 배정량의 8% 수준으로,

새로운 판로로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 도내 활소라 생산 수협 6곳과 연석회의 2회를 열고 차질없는 군납 공급 준비를 논의했다.

제주도는 연석회의를 통해 가공총괄수협을 한림수산업협동조합으로 정하고, 가공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수협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수협별 소라 총허용어획량(TAC) 배정량을 조정하고 군납 계약에 따른 자숙 뿔소라 생산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이소진기자

(재)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 - 78호

2019년 제주 지역기업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업회에 애로를 겪고 있는 성장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요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2019년 6월 ~ 2019년 10월(사업비 소진시 마감)
- **지원규모:** 25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30,000천원
*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부담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제주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제주 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 제주 주력산업 분야: 청정헬스푸드, 스마트그리드, 지능형관광콘텐츠

3 지원내용

- 바우처 프로그램 지원한도 내에서 필요 서비스 자율 구성
- 단독 및 패키지 구성 가능하며, 패키지 구성시 프로그램 간 연계성 필요

○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RIPS)	신청평가	협약체결	바우처 발급*
제주TP/신청기업	제주TP	제주TP→지원기업 →공급자	제주TP→지원기업
검수 결과보고 및 바우처 지급요청	서비스 제공 및 결과보고	중간점검 (현장실태조사)	바우처 사용 및 서비스 요청
신청기업	공급기관	제주TP→지원기업	지원기업→공급자
최종평가	바우처정산 및 사업비 지급		
제주TP	제주TP→공급자		

* 지원금은 후지급 원칙으로 최종평가 후 공급기관에 지급

3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2019.05.29.(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rips.or.kr, RIPS) 앞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을 통한 온라인 접수
 - * 작성요령: 공통사업계획서 작성 → RIPS 온라인 신청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접속 → 기업 회원가입(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 → 로그인 → 기업정보 등록 → 사업참여 신청 → 해당 사업 클릭 → 내용입력 → 제출서류 첨부 → 신청완료

* 종료일(5/29) 18시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반드시 온라인 입력 후 "신청완료" 필히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기업사용자 매뉴얼 참고

○ 문의처: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064-720-3039, E-mail: ksg@jejutp.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jeutp.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JTP 제주테크노파크

화북초등학교 총동창회

제10회 총동문 한마음축제

1921년 화북학숙(禾北學塾)으로 설립되어 98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모교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래와 같이 동문 가족 및 학교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화합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일시 : 2019년 5월 19일(일) 오전 10시
장소 : 모교운동장(우천시 실내 체육관)

연락처 총동창회 사무국 : 064.723-3927, FAX.753.3927
총무부회장 김영국 010-9839-1411
수석부회장 고봉주 010-4695-4847
회 장 홍기철 010-3690-7144

화북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홍기철